



전주교대 보직교수 3명, 발전기금 기탁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25일 대학 보직교수 3명의 발전기금 기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미리아 초등교육연구부장, 김평 평생·영재교육원장, 이충한 인성교육원장은 학생들의 장학 사업을 비롯한 대학발전을 위해 발전기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여한 오미리아 원장은 "학교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며, "보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앞으로도 후학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박병춘 총장은 "새로운 100년을 향해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발전기금으로 뜻을 모아 주 감사하고, 대학이 한층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대는 바른 인성을 갖춘 초등교원을 양성하고 행복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청소년들의 등대가 되는 것”

대한청소년보호선도회, 집행부 전체회의 개최

청소년보호와 학교부적응청소년들의 권익신장과 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을 기치로 출범한 대한청소년보호선도회 중앙본부(중앙회장 임종근)가 지난 23일 집행위원과 각 지역 지부장 및 청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관사업 중 목적사업에 대한 고지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인증기관으로서 청소년선도활동에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따라서 각 집행위원들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지원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최 후 상임이사는 “청소년선도사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도내 청소년들의 등대가 되는 것”처럼 각 임원과 지역 지부장들의 높은 관심과 선전을 당부했다. 아울러 “멘토의 역할을 충실 하는 게 선도회의 주된 목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임종근 중앙회장은 “돌아켜 보면 청소년 시기에



멘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며 “기성세대로서 경험을 통해 학교부적응청소년들의 일깨움에 일조할 것”이라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장애인의 날 기념 사랑의 장애인 콘서트 성료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소장 김양옥)가 주관하고 전라북도 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단장 이수정)과 수정과 한울타리협회에서 주관하는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사랑의 장애인 콘서트가 지난 23일 풍남문화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행사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코로나로 지친 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생활에 용기와 풍요로운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열렸으며, 김양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 황의옥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수정 전북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장 등 임원들과 장애인 및 가족 2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식전공연, 개회식, 표창식,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으로 구성됐다.

공로 표창 수여식에서 김주연씨가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오병희(개나리)씨가 전라북도회의장 표창을 송용섭 양시현, 송희숙 정순임, 이수정 최정옥, 류명현 김정숙(공설), 유현순 강혜원 김민주, 김선이 강정원 김연경, 문민오, 권민경, 남윤환 이명철씨 등이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 표창장을 받았다.

김양옥 소장은 이시점에서 “장애인에게 삶에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이바지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힘들고 어두운 생활에 활기를 주기 위해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을 위한 사랑의 장애인 콘서트를 열게 됐다”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사회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 산내면, 마을복지계획 수립 설명회 개최

남원시 산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하진숙, 민간위원장 양재웅)는 25일 마을복지계획 관련 설명회 및 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위원 15명이 참석해 가진 마을복지계획 수립 설명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단위의 복지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법을 찾아 실행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추진의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2022년 주요 사업 추진으로 작년에 이어 ▲반송반송 산내애 빨래방 운영 ▲산내애 함께하는 기부 문화 프로젝트와 신규사업으로 ▲산내애 연계형으로 삼복 더위 거뜨~! ▲산내애키즈들, 드림멘토와 미래를 꿈꾸다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하진숙 산내면장은 “마을복지계획을 통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 사업 추진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사이클, 전국대회서 금빛 페달

전북 사이클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금빛 페달을 밟았다.

전북체육회는 최근 전남 나주에서 열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에서 메달을 대거 획득했다고 밝혔다.

남자 일반부 경기에 출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이클팀은 단체추발과 주중목인 옴니암에서 1위를 차지한 임재연의 활약 속에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또 전주시청은 신주영이 독주경기에서 1위를 했고, 단체스프린트에서도 2위를 기록했다.

여자 일반부에서 삼양사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단체추발 1위를 기록한 삼양사 사이클팀은 개인경기에서도 나이틀과 이은희 이연경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 대회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재연은 최우수선수



상을 장선제 감독은 최우수감독상을 수상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 아영면 귀농봉사단, 봉화산 정비봉사

남원시 아영면 재능기부단(단장 황병연)은 지난 23일 봉화산철쭉군락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한 통로를 만드는데 봉사에 나섰다.

이날 봉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감했던 몸과 마음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일시에 풀리며, 많은 관광객이 봉화산 철쭉군락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봉화산 노후 데크길을 재정비했으며, 아영면 재능기부단은 우리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살다가 아영면으로 귀농 귀촌한 15명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올해 발족했다.

한편 봉화산 철쭉군락지는 봉화산 하단부에서부터 정상부 920m에 이르기까지 약 20여일의 시차를 두고 층계식으로 철쭉개화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철쭉명소로 손꼽히는 곳으로 5월초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남원=김기두기자

전주대, 전국씨름선수권대회서 금1·동3 획득

전주대학교 씨름부는 최근 강원도 인제군 원통체육관에서 열린 제76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 참가해 금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소장급(80kg) 이준(생활체육학과 4년) 선수는 결승에서 작년에 4관왕을 차지한 단국대 흥승환 학생 선수를 만나 접전 끝에 밀어치기로 승리하며 1위를 차지했다.

경장급(76kg) 한지민(생활체육학과 4년) 선수와 청장급(90kg) 홍지원(생활체육학과 2년), 장사급(140kg) 차승민(생활체육학과 2년) 선수도 뛰어난 경기력을 펼치며 3위에 올랐다.

홍지원 선수는 선수권부(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통합)에서 3위를 차지했다. 선수권부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선수들이 통합으로 치르는 체급별 경기다.

이준 학생 선수는 “학업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부족했던 훈련을 새벽과 야간에 집중했던 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



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대 씨름부 임종길 감독은 “올 시즌 첫 대회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경기 운영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완해 다수의 학생 선수들이 입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495개소 경로당 전면 개방

남원시는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1주일의 개방 준비기간을 거친 경로당 495개소를 25일부터 전면 개방했다.

단 이용은 3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만 가능하며, 반드시 회장 또는 총무 책임 아래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V 앱), 접종경명서, 스티커 등을 확인 후 이용이 가능하며, 노래교실 등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없고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환기 수시 실시, 마스크 착용은 종전과 같이 실시한다.

식사는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1m 이상 띄어 앉기, 외부 개방을 실시한 후 가능하며, 식사 전·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잔치나 복달임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은 “경로당 운영 재개가 그동안 여가활동에 제약 받았던 어르신들의 스트레스 및 우울증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 환경정비 구슬땀

전주시 인후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황승일)와 새마을부녀회(회장 박임순)는 지난 25일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 취약지역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회원들은 이날 상가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정영신로 일대와 평소 주민들이 자주 찾는 이랑길공원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치우는 등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그간 꾸준히 제기 되었던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 청소와 잘못된 분리수거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직접 재분류 작업도 병행 실시했다.

황승일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노력해 깨끗해진 동네를 보니 많은 보람을 느낀다”며, “쾌적한 인후3동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김호중 팬카페, 평화1동 저소득층에 선풍기 후원

김호중 팬카페 “전북김제너랑”(리더 권정순)회원들은 25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선풍기 100대(환가액 600만 원)를 평화동 주민센터(동장 박은하)에 기탁했다.

지난 4월 28일 ‘나보다 더 사랑해요 2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기탁 물품은 어려운 이웃들이 더운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김제너랑 이리스 들은 “회원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모아진 후원품이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 운봉읍, 관내 위기가구 환경개선 지원

남원시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배세근, 김중열)는 4월 회의를 개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임계마을 주거위기가구 노인가구의 주거 환경개선을 결정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운봉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협약해 진행하는 연합모금 사업으로 추진되며, 지역주민이 자체 모금한 실내화장실 설치비 300만원을 지원한다.

배세근 운봉읍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은 물론이고 주민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한다는 자세로 공공·민간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읍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